

안정가격 당분간 지속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서 론

진달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만개한 고향산촌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을 잠시 묵상한다.

모두 떠나버린 옛 친구들, 텅빈 집들, 적막속에서 기지개를 펴는 농번기의 몸은 묘자리일에서 시작됨을 보지만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가끔 개 짖는 소리와 돼지 꿀꿀대는 소리가 적막을 깨뜨리는 고향.

아! 농촌은 이렇게 피폐되고 말 것인가? 누라서 농촌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젊은 아낙들의 빨래터랑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펼쳐낸단 말인가?

UR의 파고, 그 이전 새마을 운동을 펼치던 때가 엇그제련만 포장도로의 승용차가 농민을 조소하듯 횡 지나간다.

2. 돼지 매물두수는 딸린다

대만산 삼겹살이 축협공판장을 통하여 연일 경매·방출되고 있다(표 1 참조). 하루평균 17톤

(약 370두분)의 수입돈육이 방출되고 있지만 시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가당국에서는 수입량을 더 늘릴 것을 검토하는 눈치다. 또한 사료생산량을 살펴보다라도 '93년 3월과 동일한데(36만 8천톤) '93년 3월 두수통계는 516만 7천두임에 비하여 '94년 3월 두수통계는 572만 8천두로 56만 1천두가 증가된 상태이므로 연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표 1〉 수입돈육 경락현황 (대만산 삼겹살)

날짜	물 량		평 균 경락가 (원/kg)	비 고
	박스 (25kg)	수량 (kg)		
4/9	1,452	36,300	4,834	국내 육가공업체 도매가격 4,700~4,900원/kg
4/11	1,291	32,275	4,780	
4/12	827	20,175	4,809	
4/13	582	14,550	4,780	대만산 국내 도착가 (관세 25%, 제비용 5% 포함) 4,732원
4/14	521	13,025	4,716	
4/15	498	12,450	4,702	
4/16	448	11,200	4,688	
4/18	403	10,075	4,676	
4/19	472	11,800	4,663	
4/20	200	5,000	4,702	
계	6,674	166,850	4,735	

수입돈육을 하루 17톤 정도를 방출함으로써
 폭등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당국이 양축가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정되었으면 안정대선은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과거에 비하여 금년 들어서는 이유자돈사료가 무려 4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그 원인은 사료생산체계의 변화도 있었지만 역시 자돈의 영양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는 증거로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육성돈사료로 전환하는 시기를 늦춰 줌으로써 조기성장애 힘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양돈시세 전망

시세의 등락에 따라서 수입육의 방출량을 조절하게 되는 입장에 이르게 되었으니 전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다. 요즘에도 하루 17톤 정도를 방출함으로써 폭등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당국이 양축가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정되었으면 안정대선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 **■**

(그림 1)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